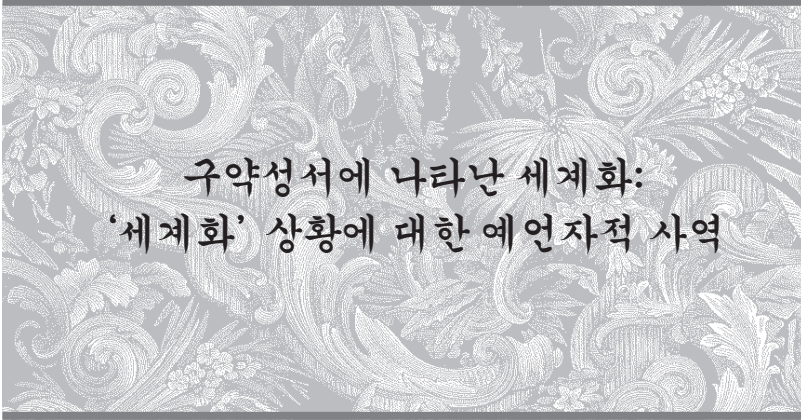




▶구약성서와 세계화◀

유윤중(평택대) 구약성서에 나타난 세계화: '세계화' 상황에 대한 예언자적 사역
박영신(연세대) 초월의 정신과 범세계화의 정황

www.kci.go.kr



유윤종 | 평택대

1. 시작하는 말

1) 문제제기

‘세계화’ (globalization)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지도 20년 이상이 흘렀다. 1980년대가 ‘포스트모던’ 논쟁이 주된 인문학적 주제였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 논쟁이 모든 분야에 걸쳐 토론의 주제가 되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융자본의 초국가적 확대, 초국가적 기업의 생산 및 판매, 초고속 운송수단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귀결된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세계화’라는 용어 속에 잘 드러나 있다.¹⁾ 이 용어는 ‘신자유주의 경제’란 용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쓰나

1)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제화’란 국가 간에 영향력이 미치지 되는 현상이며, ‘세계화’





미처럼 밀고 들어와 인식하던 하지 않던 우리의 현실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태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외국인들이 초등학교 교실에도 들어와 있고, 말로만 듣던 나라에서 온 사람을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초국가적 제품과의 만남은 이미 친숙해진 지 오래이다. 세계의 명품 브랜드 상품이나 음식도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유명제품을 다른 나라에도 쉽게 볼 수 있다.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축구팀 첼시 선수들의 유니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를 발견할 수 있으며,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인터넷 문화로 대표되는 통신체계의 발달로 세계의 모든 현황을 집안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거리 개념이 단축되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는 점차로 허물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자본을 중심으로 모든 요소들이 끌려가는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돈이 몰려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지역으로 21세기의 유목민들이 신속하게 몰려가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신흥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몰려와 단일 민족의 개념, 전통적 가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다인종화, 다문화화가 들어가면서 다양화를 촉진시킨다. 한편 초국가적 기업들은 국경을 넘다들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며 세계화의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모든 영역에 걸쳐 자본을 물먹는 하마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그 이면에는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소외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불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전 세계를

(globalization)란 지구라는 단어 'globe'에서 온 것으로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은 '경제적인 힘'이다.





드리우고 있다.

‘세계화 현상’에 대해 기독교는 활발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가장 활발한 연구 성과는 선교학, 기독교 윤리, 조직신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성서학과 연결된 연구는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다.³⁾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성서에서 출발한다. 성서적 근거에 기초해, 원리를 찾아내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권위에서 결코 도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 성경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⁴⁾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를 성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구약성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화’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현실적 주제를 구약성서에 대입시켜 답변을 찾고자 할 때 항상 직면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구약성서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 연구사

‘구약성서와 세계화’란 주제를 직접 다룬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필자가 찾은 구약학에서의 연구는 2010년에 출판된 콤베르 (Coomber)의⁵⁾ ‘기

2) 필자가 조사해본 바로는 세계화와 관련된 기독교적 주제로 쓴 학위논문은 약 10 편, 학술 연구 논문은 약 140 편, 단행본은 10권 정도가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서 신학과 관련된 주제나 논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가운데 국내에 출판된 대표적인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리처드 보감,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 성경의 눈으로 선교 바라보기』, (새물결플러스, 2010). 장윤재,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편견을 넘어서 소통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손규태, 『세계화 시대 기독교의 두 얼굴』, (한울, 2007). 피터스 레베카 토드, 『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새물결플러스, 2012).

3) 이성희, “성서가 의미하는 세계화,” 『교육목회』 222 (1995), 17-23.

4) Bruce C. Birch & Larry L. Rasmussen, *Bible and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1989), 141.



업화된 세계화를 통한 예언서 다시읽기」란 책이 유일하다.⁵⁾ 이 책은 기원 전 8세기 예언서에 나타난 경제적 불의를 이해하기 위해 21세기의 ‘기업화된 세계화’와 비교 분석한다. 그는 믹 2:1-2 및 사 5:8-10에 근거해 몇몇 부유한 사업가가 가난한 유대 농부를 소규모로 착취한데 따른 예언자의 비판이라는 기존의 주장 대신에, 그 시대 유대 농부들이 몇몇 거대한 대지주 계층의 체계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대 변화가 초래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았다. 주전 8세기 유대 사회는 21세기의 기업화된 세계화의 조상이 되는 세계 체계(world system) 속에 흡수되는 문화적 진화 과정을 겪었다고 풀이한다. 즉 8세기 유대 사회가 급격한 인구팽창과 경제발전으로 땅의 대부분이 몇몇 엘리트에게 흡수되는 오늘날의 세계화 경험을 겪었다고 보았다. 지도자들은 높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상업을 장려했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엘리트들에 의하여 유대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유대 농민들은 빚을 지게 되고, 힘 있는 엘리트는 힘이 약한 농부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콤베르는 고고학, 사회학, 인류학, 문화학, 경제학 등의 이론을 빌려와 설명한다. 콤베르는 주전 8세기의 상황을 오늘날의 기업화된 세계화 속의 경제적 불평등과 대비시키면서 구체적으로 튀니지의 농업경제의 예를 적용시켜 유비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세계화는 21세기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주전 8세기 유대 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진화 이론이다. 각 지역 간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 각국과 체계화되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순환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그는 21세기 ‘기업화된 세계화’를 ‘구조적 적응의 부정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그는 국제통화 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현재의 세계 시스템에 수반되는 빠른 발전과 성장의

5) Matthew J. M. Coomber, *Re-Reading the Prophets through Corporate Globalization: A Cultural-Evolutionary Approach to Economic Injustice in the Hebrew Bible* (Piscataway: Gorgias, 2010). 필자는 이 책을 직접 읽은 것이 아니다. 국내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 인터넷에 소개된 몇몇 북리뷰를 읽고 간추린 것이다.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더 큰 억압의 구조 속에 고통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쿰베르는 성서에 나와 있는 제한된 자료들에 근거해 수많은 인접학문을 빌려와 현재와 주전 8세기의 유대사회를 비교하면서 성서의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다만 이러한 유비관계 속에 적용된 수많은 이론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했는가, 혹은 주전 8세기와 오늘날 ‘기업화된 세계화’사이의 유비관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약성서와 세계화의 주제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하나의 예를 제공해주며, 구약성서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 시대를 읽어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쿰베르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세계화와 구약성서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므로, 그 연구범위의 설정과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 수많은 실험을 필요로 한다. 다만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방법과 해석학적 전제들 속에 축적된 학문적 규범을 얼마나 엄격하고 치밀하게 구성하는냐의 문제는 연구자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연구방법 및 목적

‘세계화’라는 단어는 21세기의 용어이며 현실이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세계화’란 주제는 21세기의 범지구적 현실과 20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과 고대 근동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지닌 구약성서와의 대화이다. 따라서 이 작업은 ‘그때 거기’(what it meant)와 ‘오늘 여기’(what it means)를 어떻게 비교하고, 분석해, 유비관계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적용시키는 일이다. 여기에는 구약성서 신학뿐만 아니라, 21세기 현 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전반적인 문화적 연구 등 과도 대화를 해야 하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도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학, 사회학 등 일반 학

문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근거해 구약학적 주제를 연결시킨다. 또한 신학 일반 가운데 기독교 윤리나 조직신학과도 대화해야 한다.

구약성서는 문학으로 되어있다. 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많은 장르를 이용했지만, 그 기본이 되는 전제는 다 문학작품이라는 것이다. 즉 성서는 매우 높은 문학적 수준을 자랑한다. 그것을 일반 고전으로 놓고 비교하더라도 그 문학성은 어떤 작품에도 뒤지지 않는다. 성서의 내용은 많은 문학가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해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며, 성서에 나타난 문학적 은유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한다. 성서의 많은 이야기나 신학이나 주제들은 유일회적 사건이나 옛날이야기로 존재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온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의 패턴으로 기능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 가능한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문학적 은유와 연상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인 세계화와 관련된 ‘표지들’(markers)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부르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분석한 방법론을 적용해 세계화 시대에 ‘예언자적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⁶⁾ ‘예언자적 사역’에 대하여 부르그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언자적 사역의 임무는 우리를 둘러싼 지배적인 문화의 의식과 인식에 대한 대안이 되는 의식과 인식을 양육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일깨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⁷⁾ 부르그만은 구약성서의 예언자를 ‘왕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자로 파악한다. 부르그만은 이 개념을 단지 왕정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서 시대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 즉 재물, 지위, 안정희구 등을 포함시킨다. ‘왕조 이데올로기’는 일반

6)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1978).

7) 앞글, 13.



사람들에게 수동적인 복종과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예언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 대안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생각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사역에서, 예언자들은 당시의 상황에 내재하고 있는 죽음을 드러내고자 하며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했다. 예언자들의 노력에서는 열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탄식했고 백성들에게 탄식하기를 요구했다. 예언자들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고 새로운 대안적 삶이 가능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부르그만은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구약성서의 해석과 독자의 해석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부르그만에게 있어서 예언은 고대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예언자의 종말론적 비전⁸⁾을 통해 ‘세계화 현상’의 분석과 예언자적 사역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시작하는 말의 서술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재 논쟁중인 세계화의 정의와 세계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재의 상황을 정리 한다.⁹⁾ 그 과정에서 일반 인문 사회과학과 기독교 신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3장에서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세계화의 표지를 구약성서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인 창조, 출애굽, 역사, 예언, 지혜문학을 통해서 살피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세계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재의 상황(2장)에 대하여 3장의 표지들을 활용해 예언자적 사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8) 예언자들은 사회질서에 대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청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9) 지금까지는 세계화의 과정에 내포된 가치개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세계화에 대한 공통된 윤리적 근거를 찾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다음을 보라. James H. Mittelman, "Globalization: Captors and Captives," in eds. James H. Mittelman and Norani Othman, *Capturing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01), 8.



자 한다. 5장에서는 맺는말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2. 세계화의 정의 및 새로운 상황들

1)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작점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¹⁰⁾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그 용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프리드만, 벤 버냉키, 안소니 기든스와 같은 찬성론자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 철폐와 완전자유화만이 모든 진영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전 세계의 빈곤이 세계화를 통하여 2020년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근대화와 강대국 중심논리에 입각한 세계화론을 비판하고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룹은 반 세계화론자 혹은 회의론자라고 불린다. 그들은 세계화란 것은 세계질서의 한 측면일 뿐이지 세계화로 세계질서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세계화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세계화는 하나의 세계질서에 불과하므로 통치, 생산 및 지식의 측면에서 다원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건주의자도 있다.¹¹⁾ 벡(Ulrich Beck)은 세계화를 개념적 차원에서 세계주의(Globalism), 세계성(Globality), 세계화(Globalization)로 구분해 사용한다. ‘세계주의’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실천으로서 세계시장은 전 세계 변화의 유일한 추진력이자 척도이며, 세계화의 여타 모든 차원들 특히 정치적 차원을 규정짓는다. ‘세계성’이란 이미 인간이 세계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는 현재적 상태를 가리

10) 학자들 중에는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세계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을 보라.
A. MacGillivray, *A Brief History of Globalisation: The Untold Story of our Incredible Shrinking Planet* (London: Constable and Robinson Ltd., 2006).

11) 김미경,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 『인문연구』 59 (2010): 215-16.

킨다. ‘세계화’란 항상 변화하는 네트워크화 과정을 의미한다.¹²⁾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제화, 자유화, 보편화, 표준화, 서구화, 미국화, 탈영토화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화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세계화로 초국적 기업, 세계무역기구,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융자본, 하나의 세계적 시장 안으로 집합되는 모든 시장들을 통합하는 다양한 사업과 금융활동을 가리킨다. 즉 무역 및 자본 자유화로 인한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 아이디어 등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국가 간에 이동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가 통합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 세계화란 수많은 국제기구(IGOs: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 기구(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다국적 조직(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의 출현과 활동으로 인한 국가 정부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체들이 범지구적으로 출현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국가적 형태의 통치를 약화시킨다. 셋째, 문화적 세계화는 지배적인 서구문명이 다른 문명에 서구문명을 부과할 때 발생한다.¹³⁾ 서구의 문명을 다른 문명에게 부과할 때는 부족한 문화상품의 소비를 통하여 구현되며 세계화로 나타난 일련의 가치들까지 포함시킨다. 구체적인 예가 ‘코카콜라의 식민화(Coca-Colonization)’ 혹은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의 세계화’이다. 이것은 매스 미디어, 인터넷, 기타의 통신 및 운송 수단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결론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란 정보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과 자본, 상품, 인력의 이동으로 인하여 국가, 민족, 문화, 종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며, 통합되어 나가는 현실적 과정을 일

12) Ulrich Beck, *Was ist Globalisierung?*, 1997,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 거름, 2000, 27-34.

13) Yong-Hun Jo, “Globalization as a Challenge to the Asian Church Today,” in *Monograph*, No. 10 (Vancouver: Chalmers Institute, 2001), 4.

키는 말이다.

2) 세계화로 인해 생성된 새로운 상황

‘세계화’란 그 자체로서 좋거나 나쁜 가치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오늘날에 존재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선악의 개념을 지닌 가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현상이므로,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내용이 아니라, 세계화의 의도이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현상은 온 세계를 새로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 경제적인 면에서 추진된 세계화 현상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변화를 몰고 와 새로운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이 단락은 세계화로 인하여 이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상황들을 서술한다.

(1)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

브리태니커 사전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세계를 설명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뒷받침하는 관념체계’라고 정의하며, 다음의 5가지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1) 이데올로기는 인간경험과 외부세계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이론을 포함한다, 2) 이데올로기는 일반적 추상적 용어로 사회 정치를 조직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3) 이데올로기는 이 프로그램의 실현에는 투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본다. 4) 이데올로기는 때때로 서약을 요구하면서 충실한 지지자를 모으려 한다. 5)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한 대중을 향하며 지식인에게 특별한 지도역할을 부여하는 경향을 띤다.¹⁴⁾ 모든 이데올로기 뒤에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그룹의 의도가 숨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란 세계간의 의존성이 증대하고 평화적 통일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자본을 통한

14) “세계화,” 인터넷 브리태니카 사전.

지배조건이 숨어있다. '세계의 통일'이라는 슬로건 뒤에는 항상 지배욕구가 숨어 있다. 그 뒤에는 세계 자본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월가의 큰 손들이 있으며, 현재의 기득권층들이 있다. 20세기는 좌우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이데올로기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등장해 온 세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것은 '시장 자본주의'이며, 철학적 근간은 '신자유주의'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또 다른 종교로서 세계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세계화라는 종교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맘몬'을 내세운다. 이 신의 이름은 아람어에서 왔으며, '재물, 재산'을 뜻하며 성경에서 인격화된 신으로 나온다(막 6:24; 눅 16:13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계화를 지지하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맘몬'이라는 신이다. 우리 시대의 자본의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위치로 격상되었다.

(2)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세계화의 중심은 자유 시장 경제와 문화의 확대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초국적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정치 경제적 지배를 추구했던 제국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국주의이며, 자본주의 경제에 의한 정치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는 합법적인 지배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그 결과 부유한 계층은 점점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하게 된다.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이익의 극대화 와 재화의 축적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으로 인하여 빈부간의 차이는 점차로 더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1960년에서 97년까지 상위 20%가 차지하는 전체 수입의 비율과 하위 20%의 수입의 비율을 설명한 통계로, 과거에 비해 그 차

이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	수입 상위 20%	수입 하위 20%	상위/하위의 비율
1960	70.2	2.3	30:1
1970	73.9	2.3	32:1
1980	76.3	1.7	45:1
1989	82.7	1.4	59:1
1997	90.0	1.0	74:1

〈표 1〉 시간에 따른 세계 빈부 20%의 수입비율¹⁵⁾

2000년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하다. 2011년 미국의 빈곤층은 15.7%로 미국 전체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상 최악이며, 튀니지나 이집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한다. 빈부격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속도도 더 빨라진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득의 65%가 사회 최상위층 납세자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연봉이 10% 이상 감소했다. 미국의 한 정치가는 점점 더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의 원인을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월가 내 그룹과 기업의 총수들은 국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¹⁶⁾

미국 중산층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 중산층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중산층은 통상 중위소득 대비 50~150%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지난해 월 350만원으로, 월소득 175만원에서 525만원인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15) W. Ellwood, *The No-Nonsense Guide to Globalization* (London: Verso, 2001), 101.

16) 경향신문 2012년, 7월 24일 기사. 미국은 4인 가족의 소득이 세전 2만 2314달러 (2560만원)를 넘지 못하거나, 개인의 세전 소득이 1만 1139달러 (1280만원)를 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1995년 75.3%에서 2010년에는 67.5%로 줄었다.¹⁷⁾

(3)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는 세계화의 현상으로 초래된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세기 근대화이후 민족과 국가와 영토는 항상 같이 해왔다. 그러나 범지구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노동력이 이동함으로써 다른 인종 및 문화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탈민족, 탈국가, 탈문화적 현상을 일으키며 과거의 국가, 민족, 영토 개념에 기반을 둔 개념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탈냉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념의 문제는 사라지고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요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것은 이러한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화’는 지역과 오랜 역사에 기반한 산물인데, 세계화로 인하여 문화에서 장소가 갖는 연고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탈 장소’(displacement) 혹은 ‘탈 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⁸⁾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영향력은 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과 자본으로 인한 문화 제국주의론 및 문화 다원주의론과 관련된다. 문화의 동질화를 염두에 둔 문화제국주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중심부의 문화산업의 팽창을 촉진시키는 반면, 주변부 문화는 고립되고 쇠퇴시켜 불평등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헤게모니의 한 형태이다.¹⁹⁾ 문화 다원주의론은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생산과 수용의 구분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화로 인하여 국지적 문화가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그 나름의 자생적 토대 위에 다원화된

17) 디지털 타임스, 2012년 6월 12일 기사.

18) A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1990).

19) 김미경,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 224/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성이 증가되어 다원성, 혼종성,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²⁰⁾

(4) 세방화 (Glocalization)²¹⁾

‘세계화’를 지리적으로 상이한 문화들 간에 상호적인 침투로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적인 특성인 세계화와 지역화 양상을 ‘세방화’로 표현한다. 로버트슨에 의하면, 세방화는 문화의 세계적 동질화와 문화간 이질성의 대립구도가 이미 낡은 것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같음 속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현지의 여건과 관행, 정체성 등과 접목시켜야 하며,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끊임없이 서로 침투하면서 문화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²²⁾

(5) 창조성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어느 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가져온다. 나비효과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프랑스의 학자 자크 아탈리는 현대인을 ‘호모 노마드’로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불모지를 삶의 터전으로 바꾸는 유목민처럼 항상 창의성을 발휘하고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파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들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서로 합류하여

20) Frank J. Lechner & John Boli, *World Culture: Origins and Consequences* (Blackwell, 2005), 윤재석 역, 「문명의 혼성」, 부글북스, 2006, 63. 김미경, “세계화, 셋방화, 다문화,” 225에서 재인용.

21) ‘세방화’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일본어 토착화(Dochakuka)에서 왔다. 이 표현은 원래 농업기술을 토양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198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이 표현을 영업전략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안상욱, “세계화와 셋방화 구현,” 『인문연구』, 57 (2009), 292-93.

22) Ronal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창조적인 제 3의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퓨전’이라는 단어가 전 영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세계화로 인한 창조성이 발휘된 결과이다. 즉 기존의 틀을 새로운 환경에 따라 재해석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낸다.

3) 정리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해, 현재 정치,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의 힘은 원래 사적인 영역에 속했으나, 이제 공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내의 질서를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자본의 이동에 따른 이주의 문제는 모든 곳에서 인종화, 계급화, 젠더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세계화는 거부할 수 있는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화는 이미 현존하는 현실이며, 오히려 가속화될 전망이다. 많은 학자들은 ‘세계화’를 이미 거역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로 이해한다.²³⁾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밥 하우즈바르트의 다음의 말은 세계화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세계화가 지금까지 진행되기 오래 전, 온 세상에 미칠 ‘복된 소식’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므로 세계화란 관념은 성경에 낯설지 않다....하나님의 경륜에는 그분의 메시아 왕의 오심을 지향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화에 찬성해야 하느냐 반대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어떤

23) 세계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로널드 스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가 문을 닫아 세계화를 막으려고 해도 세계화는 창문으로 들어올 것이며, 창문을 막으면 케이블로, 케이블을 자르면 인터넷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방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Thomas Friedman, “Bigmac II,” New York Times, Dec.11, 1996. 김미경,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 215, 각주 13에서 재인용.

종류의 세계화를 지지해야 하는가?”²⁴⁾

3. 구약성서에 나타난 세계화의 표지들(標識, marker, signal)

구약성서에는 ‘세계화’란 단어가 없지만, 세계화를 나타내는 ‘표지들’은 찾을 수 있다. ‘표지’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된 물체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세계화의 표지들’을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이나 주제를 가리키는 모티프나 소재, 혹은 은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서를 세계화와 접목 하고자 할 때에 세계화와 관련된 표지들을 찾아야 한다. ‘세계화’와 가장 유사한 구약성서의 개념은 ‘보편주의’일 것이다. 보편주의란 야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국가와 이방인 및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개념이다. 또 다른 세계화의 표지는 이스라엘이 이방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경제적 동기에서 유발된 세계화라는 현상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전 1200년경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3000년 전부터 고도의 선진문명을 이룩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고대 근동’이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계화와 관련된 담론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천지창조를 비롯한 창세기 1-11장의 원 역사는 인류 보편에 대한 이야기이며,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보편주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창조 기사는 보편성을 지닌 우주적 사건이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표지로서 기능한다. 하

24) B. Goudzwaard, *Globa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MI: Baker, 2001), 20. 리처드 보컴,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 143-44에서 재인용.

나님의 창조신학에는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즉 온 인류가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계화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의 경우는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교만 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로 본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케 해 온 인류를 흩어버린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주의의 영역에는 포함되지만, 오늘날 인간중심의 세계화 시도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표지'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보편주의'와 오늘날의 '세계화'는 유사하지만 동일하게 대입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구약성서의 주요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화에 대한 표지들은 성서의 거의 모든 부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표지들을 구약성서의 중심적인 주제인 창조, 출애굽, 역사, 예언, 지혜문학이라는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다섯 영역을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로 선정한 명확한 내적 근거는 없다.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는 구약신학의 가장 중심적 주제이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자들의 사역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으로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4개의 주제를 선택했으며, 지혜문학은 후발주자인 이스라엘이 국제적 문물을 수용해 자신들의 야웨 신앙화 시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세계화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 창조 이야기

구약성서는 천지창조에서 시작한다. 천지창조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을 설명해준다. 창세기 1-11장의 내용은 이 땅의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창조신학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신학은 '만물에 대한 야웨의 주권'이다. 창조의 우연히 무질서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주권 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경영권을 위임 받았다.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에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드러난다. 에누마 엘리쉬에 나타난 창조과정은 변덕스런 신들 간의 전투로 인한 것이었다. 최고신 마르дук은 혼돈의 신 티아맛을 죽이고 그녀의 시체와 피로 육지와 바다를 만든다. 그 나머지 피로 신들을 섬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창조 신앙의 고백은 다신교적 세계관에 대한 거부였으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선포였다.

창조 신화에 나타난 세계화의 표지는 만물은 하나님-인간-자연에 이르는 체계로 질서정연하며 조화롭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우연하게 무질서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질서정연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창조신화에 나타난 '만물간의 질서'의 개념은 세계화에 대한 이상적인 지표의 설정에 있어서 1장 1절처럼 가장 중요하다. 차일스는 창조신학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형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창조된 세상은 조화롭게 되어있지만, 인간들의 세상에는 상처와 착취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창조된 세상(창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에 대한 원형이 된다고 주장한다.²⁵⁾ 오늘날의 세계화의 주된 논리는 자본과 정치적 힘에 의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를 축으로 한 상호 의존성의 확대이므로, 자본의 질서에 의한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질서로 회복이라는 신

25) Brevard S. Child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1985), 48-49. 차일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약간 오염된 단어로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세상 해방은 사회 정치적 개선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학적 표지는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counter action)의 역할을 할 수 있다.²⁶⁾

2)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형성에 참여하신 구속사의 절정을 설명한다.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야웨는 바로에게 역사와 자연에 대한 그의 절대주권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돌보시는 분으로 나온다.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으며, 북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는 누비아와 폰트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던 나라였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질서를 지배하던 나라였다. 이집트의 바로는 그 당시의 이집트의 왕조 이데올로기에 따라 '신'으로 이해되었으며, 절대주권을 휘두르는 그 시대의 통치자였다. 이스라엘의 노예경험은 세계화된 오늘날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제 3세계의 이주민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집트는 또한 다신교 사회로 수많은 신들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통치하고 있었다. 야웨에 의한 10가지 심판은 이러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출 12:12).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다양한 신들은 태양신 '라'에 대한 보조 역할이었으며, 바로를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실현에 보조적으로 기능했다. 야웨와 바로의 대결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전투였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한 야웨의 심판은 곧 불의하게 구성된 이집트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총체적 공격이었다. 오늘날의 세계화의 범주만큼은 아니지만, 출애굽기의 무대가 되는 주전 1500-1200년 당시의 역사는 애굽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주변부 국가들은 변방의 역할을 했다. 이집트의 물질적

26)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생태 경제신학'이라는 용어의 출현은 창조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장윤재,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148-83.



부를 쫓아 주변부 국가와 민족들이 드나들었다. 작은 의미의 세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광야지역에서 온 이방 민족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했으며,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개념을 '상호 의존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국가들은 변방국가로 상호 의존하는 세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애굽기 15장의 바다의 노래는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른 노래로 오래된 기원의 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에 나오는 우주적 용어들은 우가릿의 바알 서사시에서 바알이 바다의 신 얌(Yam)을 무찌르고 세계의 질서를 회복한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²⁷⁾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과의 이분법적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출애굽 사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주로 나오기 때문이다. 창세기 1-11장이 온 세계에 대한 창조 이야기라면, 출애굽기 1-15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창조 이야기로 볼 수 있다.²⁸⁾

출애굽 신학에 대한 세계화의 표지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창조만 하고 이 땅의 역사에는 간섭하지 않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27)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12-44. 일부의 학자들은 여기에서 아웨가 이집트의 군대와 바다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지, 바다 자체와 싸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출애굽기 15장은 신화적 용어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가릿 서사시와 같은 맥락이고 볼 수 있다. 시 89:6-12는 아웨가 바다에 대해 승리했다고 노래한다. 아웨가 바다와 바로에 대한 승리라는 해석은 시 77:15-21에 나온다.

28) 창세기 1-11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창 1:28과 출 17:사이에 유사한 어휘가 나오며, 출 23의 '갈대상자'의 히브리어는 '테바로 창 7:1의 '방주'와 같은 단어이다. 또한 출 22에 나오는 '키토브' ('졸았더라')는 창 14, 10, 12, 18, 21, 25, 31에도 반복된다. 유사한 어휘의 공유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주제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 삶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고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를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우리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세계화 속에서 ‘바로’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안내한다.

3)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경험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왕정제도를 취함으로써 이방국가와 동일한 왕정제도를 취하며 고대 근동의 역사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이방국가와 동일한 왕정제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배자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던 최전성기였다. 그 시대의 역사성에 대한 진실 게임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상화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세계화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역사적 진실여부는 이 글의 전개에 큰 의미가 없다. 열왕기상 3-10장에 기록된 솔로몬 시대의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나라가 성장하고 부유하게 된 모습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왕상 4:20)라는 표현 속에 잘 설명되어 있다. 솔로몬 당시의 영토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왕상 4: 21a)라는 표현 속에 드러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왕상 4:21b) 라고 되어 있다. 솔로몬 시대의 학문 활동 또한 적극 장려되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칭송은 당대의 석학들을 능가했으며(왕상 4:33)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었다(왕상4:34). 솔로몬의 화려한 건축 활동은 열왕기상 6-8장에 기록되어 있다. 성서 기자는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모습을 그리면서 세계의 중심에 섰던 솔로몬 시대를 그리



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위상과 솔로몬의 삶과 업적에는 한계가 없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풍부한 물질, 화려한 잔치, 많은 처첩들, 거대한 건축, 엄청난 지적활동의 장려 등 솔로몬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하면서도, 내적 통치의 균열상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화려한 업적 뒤에 깔린 몇 가지 부정적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솔로몬 사후 남북분열의 원인을 제공한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 가운데 부정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통적인 12지파를 해체하고 자신의 통치에 편리하게 재구성했다. 유다는 이 조직에서 빠져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솔로몬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왕상 4:7-19).²⁹⁾ 둘째, 솔로몬은 건축 활동을 위해 율법에서 금지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만 명의 역군을 불러 모았다(왕상 5:13). 셋째, 지나치게 친 유다 중심 정책을 펼쳐 다른 지파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열두 지방의 관장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일 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양식을 공급했다(왕상 4:7). 넷째, 히람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준다(왕상 9:11). 다섯째, 정략결혼으로 인하여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왕상 11:1-8).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성서기자는 그 시대를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았다. 그 화려한 제국주의적 모습 뒤에 가려진 부역에 동원되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했던 일반 백성들의 어두운 모습을 동시에 그리고 있다. 그의 권력과 물질적 부에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29) 벤아비나담(4:11)과 아이마아스(4:15)는 솔로몬의 사위이며, 9구역의 통치자인 바나 벤 후새는 아마도 다윗의 모사인 후새의 아들일 것이다(삼하 15:32-37). 8구역의 통치자인 아이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다(삼하 15:36). 5구역의 통치자인 바나 벤아힐롯은 여호사밧 벤아힐롯의 형제로 나온다(4:3). 7구역의 통치자인 아히나담 벤잇도는 다윗 시대 무릿세 반 지파를 다스렸던 잇도의 아들이다(4:14).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 관장들은 솔로몬이나 예루살렘 귀족들의 친인척이었다. 다음을 보라.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Grand Rapids, MI: Baker, 2001), 392.



없었다. 성서기자는 그것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솔로몬의 삶에는 다윗에게 있었던 나단과 같은 예언자의 비판적 간섭이 없다. 이것은 그가 쌓은 물질적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 중심의 화려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음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후의 왕조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편입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850년 이후 신앗시리아 제국의 부흥하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위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와 가치개념이 제국이 가하는 위기 상황에서 사라지고 만다.³⁰⁾ 그 가운데서 왕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엘리트 계층에게로 물질적인 부가 집중되고 율법에 근거해 지파중심의 평등주의 이상을 지향하던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사회의 와해는 속도를 더한다.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게 되고, 일반 백성들은 몰락하고 소작인이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격은 8세기 예언서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서의 주된 내용이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경험은 전통적인 지배국이었던 이집트와 새로운 지배 세력인 신 바벨론 사이의 줄타기 외교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의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유다는 외교력의 실패로 인하여 지배계층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후부터 유다의 역사는 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의 희생이 되고 만다.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와 페르시아 시대는 구약성서의 후반부와 맞물리는 시기이며,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구약성서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록되고, 편집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이며, 종교로서의 유대교로 전환하게 된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세계화 시대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유다의 직접적인 세계화 경험이었다. 제국주의

30)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3), 81.

의 희생물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방 땅에서 온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유다의 세계화 경험은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되었던 '야웨의 세계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포로이전 유다의 하나님 야웨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김을 받던 지역 신으로 이해되었고(삼상 26:19),³¹⁾ 야웨의 주된 거주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였다. 그러나 주전 586이후 유다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야웨가 머물 곳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야웨는 법궤를 타고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에 직접 찾아오셨다(에스겔 1장).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의 신 야웨를 국제적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시켰다. 그 무대는 포로기 바벨론이였다. 바벨론에 오신 야웨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갇힌 분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무대에 온 이상, 국제적인 최상의 신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신들과 싸워야 했었다. 바벨론에서 야웨는 바벨론 포로 당시의 예언자 이사야(40-55장)를 통하여 유일신 야웨를 선포한다. 이 선포는 지금까지 이해되어온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신이 야웨라는 일신론(monolatry)적 개념에서 야웨만이 신이며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 전부 허상에 불과하다는 유일신론(monotheism)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사 46:7-9). 이 개념은 성서에 기록된 최초의 야웨의 유일신 선언이다.³²⁾ 이 유일신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학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신론의 개념에서는 각각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신들과 언약을 체결했으며, 야웨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만일 야웨만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은 야웨와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특

31)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며, 야웨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야웨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이해된다.

32) 많은 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일신 사상은 포로기 이사야서에서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설명하는 수사학으로 처음 나온다고 주장한다. Mark S. Smith,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93.

별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야웨가 모든 세계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라면, 야웨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의 특별한 존재감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고민에 대해, 포로기 이스라엘은 야웨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이며, 야웨의 계획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부여 받는 자로 나온다. 이스라엘은 야웨의 특별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며,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된다고 믿었다(사 42:6; 49:6).

포로기를 통해 얻어진 신학적 유산은 귀환한 페르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된다.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도 복원되었지만, 야웨에 대한 예배는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야웨에 대한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지만, 야웨에 대한 예배는 세상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야웨의 영이 온 땅에 편만해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토에서의 또 다른 식민지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땅이 없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대상 29:15).

포로 후 시대 에스라 및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은 포로 후 유대 사회의 성격이 정치 종교적으로 다원화되어 제사장을 비롯한 높은 신분을 지녔던 사회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배타주의 성향을 내포한 개혁을 단행한다. 에스라 9-10장 및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한 이방여인과 자녀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포로후기의 유대사회는 배타주의적 성격만 지닌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나서와 룻기를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타적 개혁과는 반대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으로 이해한다. 룻기를 통해서 포로 후기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의 개종 문제를 긍정적으로 다루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³³⁾ 요나서는 하나님은 편협한 민족주의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앗시리아까지 사랑하심을 설파함으로써 야웨 종교를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보편종교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포로 이후 활동했던 이사야는 이방인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그려낸다(사 56:6-8).

4) 예언서

야웨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보편주의' 개념은 예언서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주전 760년경 예언자 아모스는 처음으로 이방국가들에 대한 신탁을 선포한다(1:3-2:3). 이방국가에 대한 신탁은 야웨의 이방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통치를 드러낸다. 야웨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역사에도 간섭하신다는 신학이다. 한편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적성국가 블레셋의 '출갭돌'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보편주의 신학의 씨앗이 처음으로 드러난다.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갭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암 9:7).

이방국가에 대한 야웨의 통치는 거의 모든 예언서에 등장한다(사 13-23장; 렘 46-51장; 겔 25-32장 등). 이 개념은 야웨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이사야 40-55장에 나타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신학으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³⁴⁾ 보편주의 신학은 전 세계

33) 정중호,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귀환이주 전승,” 『구약논단』 46(2012): 178-204.

34) Joseph Blenkinsopp, “Second Isaiah—Prophet of Universalism,” *JOT* 41(1988): 83-103.

를 하나로 묶어내는 오늘날의 세계화의 궁극적 목표 설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또 다른 세계화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평화로운 세계를 그리는 모습 속에 나온다(사 2:2-4; 미 4:1-4). 이사야와 미가서에 나오는 모습은 예루살렘이 야웨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이방국가로부터 백성들이 몰려와 야웨의 말씀을 배우는 장면이다. 또한 칼을 통한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모든 무기가 필요 없게 되어 농기구로 전환된다는 이상이다. 예언자의 이상을 통해 보여주는 온 세계의 연결점은 자본이나 칼이 아니라, 야웨의 말씀과 정의이다. 이러한 야웨 중심의 이상은 묵시문학에 나오는 야웨의 종말론적 통치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야웨의 종말론적 통치의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라는 창조질서의 회복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문서 예언자들의 주된 활동은 주전 8세기 중반에 시작된다. 그 시기는 앗시리아의 팽창 정책이 시작되던 때였다. 즉 앗시리아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왜곡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고 위기를 느낀다. 그 위기의 본질이 앗시리아라는 군사적인 힘에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부재에 있음을 알았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이미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의 세계화된 질서, 즉 팍스 앗시리아라는 질서를 등에 업고 얻어지는 부를 축적하느라,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바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정의의 부재 문제를 당시의 세계화된 질서 속에 편입된 이스라엘의 제도 때문이라고 결론내린 콤베르의 연구는 세계화의 문제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인 율법에 근거해 당시의 세계화된 질서에 나타난 불의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비

판했다.

5) 지혜문학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지혜문학의 기원은 근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영향을 받은 세계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비해 최소한 1500년 이상 늦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발전과정에서 고대 근동의 지혜 운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혜에 야웨 신앙을 접합시켜 자신들만의 독특한 작품을 남겼다. 즉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 이스라엘의 전통 지혜를 야웨의 신앙에 맞추어 이스라엘에 상황화 시킨 것이다. 잠언이라는 장르의 형성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을지라도, 그 내용은 왕정에서의 인재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왕, 신하, 백성과의 조화로운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가르친다. 전도서는 페르시아 시대 혹은 그리스 시대라는 보다 넓은 제국주의 상황에서 멀리 계셔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도자는 잠언의 저자와는 다른 인과응보의 관점을 제공한다. 즉 일관성 없는 보상과 형벌, 알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정의, 죽음으로 인한 정의의 부재 등을 관찰한다. 율기의 문학적 전통은 고대 근동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유다의 멸망에 대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비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지혜문학에 나타난 세계화의 표지는 세계화된 국제질서 가운데 받아들인 지혜문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사회적 정황에 맞추어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계화된 질서체계를 가진 문화와 적극적으로 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이 세계화된 상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구

약성서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및 그리스라는 세계의 보편질서에 대한 자신들만의 대응전략인, 이스라엘의 '세방화' 상품이다.

4. 세계화의 상황들에 대한 '예언자적 사역'의 방향

1)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 유일신 신앙

'세계화'가 이미 옆길러진 물처럼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이면에 깔린 이데올로기는 자본에 의한 지배이며 절제 없는 인간 탐욕의 바벨탑 쌓기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지배자가 계속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함으로써 마침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³⁵⁾ 오늘날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모든 사람들이 '맘몬'을 신으로 믿고, 맘몬이 세계화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퍼트리도록 한다는 데 있다.

유일신 신앙의 고백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인류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믿음에 대한 거부이다. 바벨론 포로기 이사가 공동체는 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웨만이 하나님이며 신 바벨론 중심의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였다. 이사가 40-55장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유다는 신바벨론에게 패배했다. 이 패배는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의 위기였다.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질문은 "야웨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더 강하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의 전쟁은 신들 간의

35) Julia M. O'Brien, *Challenging Prophetic Metaphor: Theology and Ideology in the Prophe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대리전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 사상은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 이야기에다 나타난다. 그것은 야웨와 이집트의 태양신 ‘라’ (Ra)를 비롯한 신들 간의 전투였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 마르독이 야웨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당시의 사상은 신학적 위기일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은 “야웨께서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였다.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했지만, 포로기 바벨론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많은 회의와 의문과 싸워야 했었다. 이러한 신학적 위기 가운데, 포로기 이사야는 야웨께서는 여전히 온 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의 청중들에게 이방신 숭배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³⁶⁾ 그 과정에서 그는 유일신 사상을 선포한다. 유일신 사상의 선포 뒤에 내포된 언어는 바벨론 창조신화인 에누마 엘리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전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먼저 바벨론 제국의 제의에 대한 조롱과 (40:19-20), 바벨론의 종교적 지성적 전통에 대한 비판이다 (44:25; 47:9-10, 12-13). 이러한 주장은 바벨론의 신년 축제인 아키투 축제와 마르독 찬양을 담은 에누마 엘리쉬에 대한 야웨 신앙의 응답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나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43:10)라는 선포로 신들의 탄생을 다룬 바벨론의 마르독 신화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선포한다.³⁷⁾ 야웨의 유일신 신앙의 선포는 바벨론의 최고신 주장에 대한 거부이다: “나는 야웨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45:5).

아이히로트(Eichrodt)는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제의에 반대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언 시대의 제의적 삶의 퇴보를 설명했지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권

36) 포로기 이사야의 주된 청중은 바벨론인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다. 포로기 이사야는 주로 바벨론에 동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Joel Kaminsky and Anne Stewart, “God of All World: Universalism and Developing Monotheism in Isaiah 40-66,” *HTR* 99.2 (2006), 143.

37) Blenkinsopp, “Second Isaiah—Prophet of Universalism,” 84-85.



능이나 자유에 도전하는 어떤 기관이나 신앙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³⁸⁾ 폰라드(von Rad)는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승에 근거해 가나안 종교와 제사장 신학에 도전하는 자들로 이해했다.³⁹⁾ 아이히로트나 폰라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나 ‘가나안 종교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는 이들이 활동했던 1930년대 독일이라는 국가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독일사회는 나찌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다. 1934년의 독일 고백교회는 나찌가 주도하는 독일국가 교회에 반대하는 바르멘 선언을 발표한다. 아이히로트의 구약신학은 1933-39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폰라드는 그의 교수 사역을 바르멘 선언 2년 뒤인 1936년부터 예나 대학교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아이히로트나 폰라드의 예언자의 이해에 나타난 ‘야웨의 주권 강조’는 1930년대 독일 사회가 나찌를 중심으로 건설하려했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적인 거부였다.

어느 시대에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 현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숨은 자본에 의한 지배는 약자나 소외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 괴물이다. 야웨가 아닌 맘몬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 신념 체계나 사고체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고백이다. 그 고백은 교리적인 것으로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역사속의 유물이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헛된 진리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38) Walter Eichrodt,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365.

39) Gerhard von Ra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1967).

2)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 예언자의 정의 (prophetic justice)

‘세계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초래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 ‘경제 민주화’ 논쟁을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경제 민주화라는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성서에 나타난 경제관’이라는 주제로 연구에 참여해 성서가 제시하는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제안했다.⁴⁰⁾ 경제적 고통의 문제는 성서에 묘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창 1:28)로서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 현상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체제인 자유 시장 체제, 즉 자본주의 때문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체제이다. 이 체제는 시장, 언론, 교육, 정치, 종교, 문화 등의 각종 제도들에 의해 유지된다. 힘이 약한 자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과 경제 정의의 실현은 같이 맞물려 있다.

이러한 자본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6.5개가 만들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⁴¹⁾ 이 시점에서 필자는 일본의 성자(聖者)이자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던 가가와 도요히코를 떠올린다. 그가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기독교 전통과 마스와 레닌의 이론을 적당하게 조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에서 출발해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한다. 그의 책 「우애의 경제학」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1930년도의 작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그가 제시했던 ‘협동조합 국가’ 모델 때문이다. 필자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알기알부할 만한 충분한 사회 경

40) 이만기, 「성서로 본 한국경제」, (진흥, 1997); 한국 신약학회, 「신약성서의 경제윤리」 (한국신약학회, 1998); 대천덕, 「토지와 자유:성서적 경제관」, (우실, 1988) 등

41) 서울신문, 3월 23일.

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강조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다. 그는 동시대의 유물사관에 맞서 인간의 의식적 측면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한다. 당시까지의 사회발전 과정에도 그랬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사회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막시즘의 계급투쟁에 맞서 새롭게 형성될 사회의 중심원리를 ‘우애’ 및 ‘형제애’라고 본다.⁴²⁾ 이 점에서 우리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주전 8세기 이후 제기했던 가진 자들에 대해 공격했던 사회정의의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가 왜곡된 현실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엘리트들 내지는 자본가들이 이스라엘의 부를 독점하고, 더 가지기 위해 온갖 억압을 자행했던 현실에 대해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언약에 기초한 율법의 철저한 이행을 설파했다. 그 예언자들이 가졌던 정신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화가 갖는 자본에 의한 억압적 구조의 개혁에 적용시킬 임무를 지닌다. 예언서에서 예언자가 강조하고 회복하고자 했던 사회정의와 공의의 바탕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배려였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근간이 되는 온 인류에 대한 형제애와 우해였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⁴³⁾ 사랑이 없는 기계적 분배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다. 사랑은 정의보다 강하다.

3) 다원화: 다양한 목소리들

오늘날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화는 우리 시대의 보편가치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로 유지되던 이슬람 국가들인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까지 자본주의의 유혹 앞에 변

42) 가가와 도요히코, 「우애의 경제학」, 홍순영 옮김 (그물코, 2009), 55.

43) 구약성서는 ‘고엘(기업 무를 자)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고엘이 된다고 선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유윤중, 석말숙, “가족 체계이론을 통해 본 구약성서의 가족이해,” 「구약논단」, 14 (2008), 10-27.

화를 요구하는 혁명이 일어나 세계화의 강물 속에 흡수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된 자본주의 현상은 가장 막강한 보편가치이자 체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수한 관습들, 전통들을 사라지게 한다. 한편에서는 국경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각종 인종들과 종교, 문화들이 서로 이동하면서 활발하게 섞이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한다. 새로운 다양성이 창조되기도 한다. 다양성의 증가는 서로의 이해를 넓혀주고 포용할 수 있다면 장점이 되지만, 서로가 파괴적인 갈등과 미움으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구약성서는 아웨 하나님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창조 기사에 나타난 ‘만물의 질서,’ 인간의 역사 내에서 구현되어야 할 ‘토라의 이행을 통한 정의,’ 지혜문학에 나타난 ‘지혜’ 등은 구약성서가 가르쳐주는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개념이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그의 구원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한 민족을 통하여 활동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띤다.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보편성은 온 인류로 확대되었지만,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와 민족이 주된 활동 무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는 다양한 시대적 배경, 다양한 공간적 배경,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로 쓰였으며 다양한 신학을 포함하고 있다. 창조 기사의 창 1:1-2:4a와 2:4b-7의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율법도 언약법전과 신명기 법전의 관점이 다르다. 역사도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관점이 다르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함은 하나의 신학이나 개념으로 다 답을 수 없다는 21세기 구약신학의 결론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는 시장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거대담론을 형성해 다양성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존중받아야 한다. 성서가

가진 다양성에 근거해 우리 시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예언자들은 왕조신학에 근거한 당시의 거대담론을 거부했다. 반대로 당시에 억압되고 잊혀져가던 언약 및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등주의 정신을 통해 당시의 주류 거대담론에 맞섰다. 역사적으로 한 사회나 국가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아왔다. 다양한 이데올로기나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다원화 시대의 예언자적 사역은 우리 시대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지양하고 다원화된 시대정신에 맞추어 다양성을 활용한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 지향적인 반대의 담론(counter culture) 역할을 할 수 있다.

4) 세방화: 보편성과 특수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의미부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좌우의 ‘이데올로기’라는 거대 담론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은 것들, 이제까지 소외돼 왔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 및 시민운동의 영향으로 정치나 사상이라는 거대담론 보다는 생활정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화에 맞서는 개념으로 등장한 ‘세방화’라는 개념은 세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 지역적인 것, 특수적인 것을 살려서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세계화의 또 다른 면이다.

구약성서의 모든 내용은 구약성서 시대에는 한 번도 세계의 보편적 진리로 적용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내지는 고대 근동 지역이라는 지리적 범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활동을 담고 있다. 유대교 이외에는 구약성서가 한 번도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된 적도 없었으며,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오랜 준

비와 기다림을 필요로 했다. 구약성서가 세계화의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옷을 입은 후 신약성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약성서의 역할이 자리 매김되고 구약성서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문명의 옷을 입고 이루어진 기독교 제국주의 역시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하나님은 범우주적이고 범지구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리 작은 지역의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와의 관계는 결코 배타적이거나 포용적인 개념이 아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계화와 세방화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화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낸다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언자적 사역은 우리 주위의 작은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 약한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거기에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이다.

5) 창조성: 예언자의 비전

사람, 상품, 문화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 생각, 문화의 틀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단일 문화 내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오는 경우 그것은 기존의 문화에 흡수되거나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는 계토를 형성해 살아가기도 한다. 다양성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의 국제간 거래가 늘게 됨에 따라, 국내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된다. 그 결과 국가 내 계층 간의 충돌도 발생한다.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와 최근 그리스 및 키프러스에서 일어나는 시위의 양상은 계층 간의 갈등이다. 새로운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새로운 상황은 지난 20년간 발달된 스마트폰,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선악의 요소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서로 교류되면서 갖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자본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인권과 가난의 극복, 가난한 자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백성들에게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들이었다. 예언자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시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했다. 하나님의 관점은 자본이나 부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지지했다. 오늘날 세계화로 인하여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그 파급으로 인한 고통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예언자적 상상력의 출발점은 프로그램보다는 정신이다. ‘가난한 자를 위한 세계화’를 라는 관점을 먼저 가져야 한다. 즉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편이 되어야 하는 관점 위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펼쳐야 한다.

5. 맺는 말

이 글을 통하여 구약성서가 형성되었던 ‘그 때와 거기’에도 오늘날의 ‘세계화’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많은 표지들을 살펴보았다. 창세기에 1장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이다. 창세기 10장은 그 축복의 결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 땅에 퍼지게 되었음을 전 세계로 흩어진 인류의 분포도로 설명한다. 구약성서의 세계 인식은 온 인류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세계화로 인하여 온 인류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징후는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화 현상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도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 항상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지도층들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점철되었다. 그 죄악의 역사는 항상 정의와 사랑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관점과는 늘 거리가 있었다. 구약성서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자신의 욕망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갈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이 쌓고자 하는 욕망의 바벨탑 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거기에 희생된 수많은 약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세계화에 대한 구상은 예언자적 종말론적 이상 가운데 자주 나온다. 정의의 토대위에 온 인류가 평화롭게 화합하며 야웨를 예배하는 종말론적 이상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욕망의 바벨탑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인류의 모습을 보고 인류의 얼굴에 묻은 욕망의 찌꺼기를 씻어내야 한다.

‘세계화와 구약성서’라는 주제는 아직 생소하다. 이 글은 ‘세계화’란 다소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구약성서의 주요 주제와 연결시켜, 세계화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언자적 사역의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했다.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는 세계화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상황과 현실적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점이다. 세계화와 생태 및 환경 문제, 세계화와 페미니즘도 큰 주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구약성서의 세계화는 신약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구약성서가 그리던 보편주의 신앙의 진정한 확대는 신약시대 이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와 관련된 세계화의 주제도 신앙적이며 영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 신학 내의 학문들, 예를 들어 조직신학이나 기독교 윤리 등에서 이루어진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들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아울러 세계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필요도 느낀다. 즉 기독교 내의 전 영역에 걸쳐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가가와 도요히코, 「우애의 경제학」, 홍순영 옮김. 그물코, 2009.
- 김미경,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 「인문연구」 59 (2010): 207-52.
- 대천덕, 「토지와 자유:성서적 경제관」 (우실, 1988).
- 보컴, 리처드,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 (강봉재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0).
- 유윤중, 석말숙, “가족 체계이론을 통해 본 구약성서의 가족이해,” 「구약논단」 14 (2008), 10-27.
- 이만기, 「성서로 본 한국경제」. 진흥, 1997.
- 이성희, “성서가 의미하는 세계화,” 「교육목회」 222 (1995), 17-23.
- 정중호,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귀환이주 전승,” 「구약논단」 46 (2012), 178-204.
- 장운재,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2009).
- 피터스, 레베카 토드, 「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방연상, 윤요한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2).
- 한국 신약학회, 「신약성서의 경제윤리」 (한국신약학회, 1998).
- Beck, Ulrichh, Was ist Globalisierung?, 1997, (조만영 역), 「지구화의

44)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및 신학자인 노박은 이사야 522-3절을 현대 기업에 대한 성서적 예언으로 풀이한다. 그는 현대기업을 “하나님이 매우 경멸적인 모습으로 이 세계 안으로 성육신하신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기업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은유이며, 교회에 대한 최고의 세속적 유사체라고 주장한다. 다음을 보라. Michael Novak, *Toward a Theology for the Corpo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1), 31-33.

- 길, (거름, 2000).
- Birch, Bruce C. & Larry L. Rasmussen, *Bible and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1989).
- Blenkinsopp, J., "Second Isaiah-Prophet of Universalism," *JSOT* 41 (1988): 83-103.
- Coomber, Matthew J. M., *Re-Reading the Prophets through Corporate Globalization* (Piscataway: Gorgias Press, 2010).
- Cross, Frank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Eichhrodt, Walter,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 Ellwood, W., *The No-Nonsense Guide to Globalization* (London: Verso, 2001)
- Goudzwaard, B., *Globa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MI: Baker, 2001).
- Grant-Henderson, *Anna, Inclusive Voices in Post-Exilic Judah* (Liturgical Press, 2002).
-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2001).
- Jo, Yong-Hun, "Globalizaion as a Challenge to the Asian Church Today," in *Monograph, No. 10* (Vancouver: Chalmers Institute, 2001).
- Kaminsky, Joel and Anne Stewart, "God of All the World: Universalism and Developing Monotheism in Isaiah 40-66," *HTR* 99:2 (2006): 139-63.
- Mittelman, James H., "Globalization: Captors and Captives," in

- eds. James H. Mittelman and Norani Othman, *Capturing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01).
- O' Brien, Julia M., *Challenging Prophetic Metaphor: Theology and Ideology in the Prophe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van Winkle, D. W., "The Relationship of the Nation' s to Yahweh and to Israel in Isaiah XL-LV," *VT* 35:4 (1985): 446-58.
- Von Rad, Gerhar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1967).

검색어

세계화와 구약성서

유일신 사상

예언자적 사역

세방화

예언자의 정의

The ‘Globalization’ in the Old Testament: Suggestions for Prophetic Ministry in Globalized Context

Yoon Jong Yoo, Ph.D,

Associate professor, Pierson School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pursues to analyze contemporary globalized context of the world, to find various

markers signifying globalization in the Old Testament,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prophetic ministry. This paper takes Walter Brueggemann’s methodology in analyzing the prophetic texts by which Brueggemann defines the prophet as a challenger against royal ideology. What he means ‘royal ideology’ includes dominant cultures of our days like wealth, position, seeking security as well as royal ideology of the biblical times.

72 구약논단 제 19권 4호(통권 50집) 2013년 12월 31일

www.kci.go.kr

Chapter two deals with new contexts caused by globalization. The new characteristics are ‘globalization as ideology,’ ‘intensification of economic inequality among classes,’ ‘cultural diversity,’ ‘glocalization,’ and ‘creativity.’ In sum, the contemporary new characteristics were driven from an economic philosophy called neo-liberalism which is spread over politics, society, cultures as well as economy, thus threatening God’s created order in the world. The globalization has been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re is no word for ‘globalization’ in the Bible, but we can find markers for signifying ‘globalization.’ In chapter three, the paper deals with ‘literary and theological markers for signifying globalization in the Old Testament.’ First, in creation story, God proclaims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is created by God. The emphasis on God’s sovereignty was the rejection of a dominant imperialistic Babylonian ideology. Second, in Exodus story, Yahweh is described as having sovereignty over history and nature. Yahweh’s punishment over Pharaoh was an attack over Egypt’s dominant ideology. Third, in the history of Israel, markers of globalization occur in entire history. The paper seeks to explain markers of globalization by dividing the period of a united kingdom, two divided monarchy, exiles, and Ezra & Nehemiah. Fourth, in prophetic texts, universalism in which Yahweh controls all nations as well as Israel occurs in various texts. Fifth, in wisdom literature, the marker for globalization is that Israel not only accepted the wisdom literature of ancient Near East, but also reinterpreted it according to its own tradition.

Chapter four suggests the directions for prophetic ministry in globalized context of the world. First, monotheism is a rejection to a belief that any other thing except God can have a sovereignty over human being. Israel

people in the exilic period did not accept imperialistic Babylonian ideology by the confessing monotheism in which only Yahweh is God. In the globalized contemporary world, we should reject any ideology that money can save the world. Second, for overcoming economic inequality in the globalized world, prophetic justice should be proclaimed. Third, capitalism is the most dominant economic system which make many various voices disappear in the world. We can find different voices in the Old Testament. Prophets rejected a unified royal theology and adopted traditional egalitarian spirit to oppose substantial discourse of their world. Fourth, it is notable that globalization has very close connection with glocalization. Two concepts are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Fifth, because of diversity of contemporary world, creative imagination is required. Prophets saw visions in the crisis of history. We should also have a vision of globalization for the poor and the oppressed.

Key words

Globalization and the Old Testament

Monotheism

Prophetic Ministry

Glocalization

Prophectic Justice

- 투고일: 2013년 7월 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7일